

C-13. Simplified surgical approach in reduced mandible

허인식^{*1}, 허익¹, 박준봉¹, 권영혁¹, 이만섭¹, 이현식², 정성민²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¹, 강남현대치과의원²

목적

임플란트시술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식립부위의 골양과 골질 그리고 인접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위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퇴축된 하악골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하치조신경의 위치이다. 치조정상으로부터 하치조신경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통법에 의해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려운 곳에 하치조신경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술식을 증례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파노라마사진과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하치조신경의 위치를 확인한다.
2. 하치조신경관 설측으로 최소 길이 10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대합치와의 관계, 하치조신경관 위치, mylohyoid ridge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임플란트의 식립방향을 결정한다.
4. 하악공전달마취를 시행한 후 판막을 거상한다.
5. 초기 round bur를 이용하여 치조정의 피질골을 천공한 후, 설측의 피질골을 인지하면서 서서히 drilling해 들어간다.
6. 2mm pilot drill을 이용하여 설측의 피질골과 접촉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일부의 설측 피질골을 삭제하면서 적정 길이까지 drilling해 들어간다.
7. Drilling시 삽입각도가 협측으로 5-10° 정도 바뀌어도 하치조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설측 피질골의 천공가능성을 계속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8. 봉합을 시행함
9. 약 3개월 정도의 치유기간을 거친 후 2차수술과 보철치료를 완료하였다.

성적 및 결론

치조정상과 하치조신경관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제까지는 매우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하치조신경 변위술 혹은 골이식술등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길이가 지나치게 짧은 임플란트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고, 하치조신경 변위술은 술 후 지각이상 등의 부작용을 빈번히 발생시켰고 골이식술은 시술의 복잡함과 더불어 뼈를 제공하는 공여부에 새로운 외과적외상을 야기하였다. 본 증례에서 이용한 simplified surgical approach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술식이다. 따라서 위의 술식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이 매우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 단층촬영과 같은 진단과정을 소홀히하거나, 시술 도중 드릴의 방향이 바뀔 경우, 하치조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하치조신경관과의 거리가 짧은 모든 환자에게 이 술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술식은 하치조신경을 완전히 피해서 긴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기 보다는 하치조신경의 설측공간과 피질골 부위에 최소 8-10mm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방법이다. Simplified surgical approach를 통해 그 동안 얻은 임상적 결과들을 발표하고자 한다.